

# 배추 한포기 7600원...김치 담그기 '포기' 해야 하나

### 역대급 폭염에 생산 줄어 광주·전남 한 달만에 50% 가까이 올라 양배추·양파·상추도 들쭉...정부 비축물량 방출·조기 출하 지원

광주·전남지역 채소 값이 천정 부지로 치솟는 모양새다.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지역민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물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달 간 도매가가 무려 50% 가까이 치솟았던 배추 등 엽채류의 경우 2주만에 20%이상 가격이 뛰었고 소매가도 채소류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고 전남도도 이번 주 소비재정책위원회를 열고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수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일 지는 미지수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산물유통정보(KAMIS)로 나타난 광주지역 배추(상품·10kg) 도매가는 지난 16일 기준 1만 8200원

으로, 지난 2일(1만 5300원) 대비 19.0% 올랐다. 배추 재배 면적 감소에다, 여름철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고지대의 작황 부진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농가들이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을 감안, 여름 배추 출하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말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추 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값 상승세도 여전하다. 같은 기간 양배추(상품·8kg) 도매가는 7630원에

서 9530원으로 24.9% 올랐고 브로콜리(23.0% ↑), 시금치(58.1% ↑), 적상추(2.6% ↑), 양파(9.9% ↑) 등도 상승세다. 농산물 소매가도 상승세다. 광주지역 배추(1포기) 소매가는 지난 16일 기준 7660원으로 2주만에 48.4% 뛰었다. 이 밖에도 다다기오이(상품·10개)가 1만 4167원으로 20.7% 올랐고 무(1.5% ↑), 당근(3.2% ↑) 등도 상승세가 여전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면 서 농산물 생육 부진 및 병충해 확산 등 작황 부진

으로 당분간 농산물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애호박과 오이, 무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 44차 경제관계자회의의 결물가관계자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배추·무 등 채소류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역시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yang@kwangju.co.kr

## “어촌 정착에 큰 도움 됐다”... ‘전남귀어스몰엑스포’ 성료

### 전남 우수어촌계 14곳 참여 150여명에 상담·정책 설명

“귀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엑스포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게 돼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도시민들과 전남 어촌계를 연결하는 ‘2024 전남귀어스몰엑스포’가 어촌계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목포해양대에서 열린 귀어스몰엑스포는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충청 지역 도시민 150여명에게 귀어·촌 정책 지원, 금융 상담, 스마트 양식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귀어 절차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엑스포에는 여수 안포·화태·금봉, 진도 신기, 해남 임하·송호, 고흥 우두·신평, 강진 수인·속마, 영광 설봉·구수대신, 보성 석간, 장흥 신리 등 전남의 우수 어촌계 14곳이 참여해 귀어를 하고 싶어도 어촌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도시민들에게 빈집·입자리 정보 등 실질적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귀어스몰엑스포는 전남도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장흥 신리 어촌계, 해남 송호 어촌계, 여수 안포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 지역민들이 지난 17일 목포해양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귀어스몰엑스포에 참여해 어촌 정착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촌계, 고흥 신평 어촌계 등은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시판하고 있는 매생이·스낵, 전복 스낵, 갈매오리, 마음미역 등의 시식 행사도 진행하면서 전남 어촌의 자체 상품을 선보였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지역 어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정착, 제 2의 인생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농촌지역 사회적 농업 활동 확산 총력

### 돌봄농장·생활돌봄 등 서비스

전남도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농촌 돌봄서비스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 8개 시·군, 16개 법인·단체가 농촌돌봄농장이나 주민생활돌봄 사업 등의 농촌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나주 명하썬빛협동조합, 고흥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서

스를 하는 사업이다. 농촌주민생활돌봄은 곡성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해남 줌도리협동조합과 꽃매듭동조합 등 주민과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유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품 배달, 집수리,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회적 농업활동 확산을 위해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농촌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단체들의 육성과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담당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천·영광 등에서 현장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년도 농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공모에도 대응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와 우리 쌀 판촉행사

농협전남본부는 18일 농협 목포유통센터에서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와 함께 쌀 소비촉진 및 한국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우리 쌀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지난 16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농협 전남본부와 전통주생산자협회 간 '쌀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쌀로 빚어진 전통주와 막걸리를 통해 '쌀'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에도 전통주 시장은 지난 2022년 출고액(1629억원)이 2018년에 견줘 4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행사 기간 1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해남군 옥천농협이 생산한 즉석밥 '땅끝햇살 쌀밥'을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의 매력과 쌀의 소중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추석맞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살핀다.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연합뉴스

## aT,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협약

### 세계직업능력교육협회·통계뱅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세계직업능력교육협회, 통계뱅크 주식회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대한민국 농·수산물 산업 발전 관련 상호협력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aT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생산·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대폭 줄인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해조류와 어패류 등의 저탄소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식사를 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장윤영 기자 zzyang@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